

삼학도 노벨평화상 기념관 30일 착공

지상 2층 규모 컨벤션 동 등 갖춰 목포시, 전시·유품 4630여점 확보

목포 삼학도에 들어서는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오는 30일 착공된다. 특히 이날 기공식에서는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15마리와 2000년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의미를 담아 풍선 2000개를 날리며 착공을 기념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 중앙부처 장차관, 건립자문위원, 시민 자문위원 등 5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학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과 관련 ▲건립 위치 조정 ▲사본

번인 전시품 ▲당초 지하 1층·지상 1층서 지상 2층으로 변경해 삼학도 전경이 가려지는 점 ▲삼학도공원 조성 이후 추진 등을 주장해왔다.

목포시는 기공식을 앞두고 15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목포시는 건립 위치와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시·외·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장소 선정 시 주변과의 조화(34.1%), 상징성(27.2%)에 가장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이 만호동 2-49번지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지난 2008년 2월 목포 방문 시 건립예정지 현장을 보고 ‘장소가 참 좋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시품이 사본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는 사본도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까지 전국적인 수집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시품 및 유품 4630여점(시민 소장품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적봉 예술관내 119점, 김대중 도서관 377점, 김대중 평화센터 76점, 대통령 기록관 2865점, 나라기록원 712점, 노벨재단 137점, 시민소장 사료 544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학도 전경이 가려진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기념관은 지상 2층 14

m 높이를 건립돼, 중삼학도(해발 31m)와 소삼학도(15.1m)로 전경을 크게 가리지 않으며, 지반이 낮아 해수유입이 잦기 때문에 가급적 지하시설물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이 2012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삼학도공원 조성 이후 추진되는 불가하고,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15600㎡의 부지와 연면적 4,677㎡에 전시동과 컨벤션 동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90억(국비 90억과 지방비 1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3년 상반기 개관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그날의 의미 되새기며 만세삼창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15일 광주 남구 시작동 빛고을문화관에서 열렸다. 강문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만세삼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日 독도영유권 주장은 군국주의 부활”

오바마 ‘키친내각’ 이홍범 박사 美 지도층에 서한 발송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키친 내각’(Kitchen Cabinet) 일원인 재미 동포 이홍범(69·사진) 박사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군국주의의 부활로 규정하고 전 세계가 합심해 일본의 야욕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박사는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인물로, 지난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 키친내각의 명예장관으로 위촉됐다. 키친내각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답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을 이르는 말로, 정책 자문과 여론 전달의 창구로 활용된다.

한미정책연구소 회장이며 헌팅턴 커리어에 학자인 이 박사는 서한에



서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명기함으로써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듦으로 인해 미국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단순히 한일간의 영토문제를 떠나 아시아와 태평양, 미국의 국가 안보와 평화, 나아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정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을 정복하는 것이 아시아를 정복하는 것이며, 아시아를 정복하는 것이 러시아를 정복하는 것이며, 러

시아를 정복하는 것이 미국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정한론(征韓論)’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저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의거해 1894년 청일전쟁을,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켜 1905년 독도를 일본령으로 강제로 편입시켰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쳐 드디어는 미국을 정복하기 위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정한론은 ‘정한(征韓)’이 아니라 ‘정미(征美)’이며,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일 목표가 독도 영유”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지난 12일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상·하원 의원, 저명 학자, 각국 대사관, 언론사에 보냈다. /연합뉴스

장기 기증 열풍 ‘반짝’ 상승 그쳐

2009년 18만명서 2010년 12만명으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 기증을 계기로 불기 시작한 장기 기증 열풍이 ‘반짝’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기증희망자는 2009년 2월 김 추기경이 선종(善終)시 각막을 기증한 이후 장기 기증 열풍이 불면서 18만504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2010년 12만4377명으로 6만668명 줄었다. 장기기증 희망자는 올해도 6월 현재 5만4396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에 반해 장기이식 대기자 누적 수는 2008년 1만7418명에서 2009년 1만7055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 1만8189명, 올해 6월 현재 1만9992명으로 다시 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포·신안·해남에 마리나 시설 우선 조성

전국 3~4개 권역 개발... 요트생산 시설도

목포·신안·해남 등 전남 서남권에 마리나 시설이 우선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마리나산업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은 물론 수리·판매·생산과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망라한 향만시설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확정된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전 남 4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10개 권역 43곳을 2019년까지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하기로 했던 방침을 변경, 전국 3~4개 지역을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물망에 오르는 지역은 동남권(부산, 충무, 통영)과 서남권(목포·신안·해남), 경인권(화성·전곡) 등 세 군데다. 목포는 이미

마리나항만이 운영되고 있다. 오윤열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미 요트 정박 시설이 있는 곳에 배후 시설을 갖춰 공공 마리나로 집중 개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중 개발되는 3~4개 권역에는 인근 대학과 지역 사회와 협력해 요트 관련 인력이 공급되고, 인근 공단과 연계해 배후에 고급 요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부터 한미 ‘을지연습’

광주·전남 주요 기반시설 테러대비 훈련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 UFG는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연합으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이다. 미군측에서는 해의 병력 3000명을 포함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만여 명이 참가한다. 우리 군에서는 군단, 합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등 5만6000여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시 분청 및 자치구, 군인, 경찰, 동원업체 등 116개 기관에서 참가하며 강문태 광주시장도 연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연습에서는 국지도발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 국지도발 현장 대응매뉴얼 검토, 분야별 비상대비 계획 실효성 검토, 전 공무원 전시입대세 확립 등을 중점 실시한다.

광주시는 을지연습 부대행사로 안

보강연회, 독도특별전, 적 정비 전시회, 충무시설 견학, 비상대비 체험교육, 테러대비훈련 참관, 비상식량 시식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적의 공습에 대비한 실제 주민대피와 차량통제훈련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일원(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전남의 경우 34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무안 국제공항 피폭 및 여수 석유화학공장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영광 원전시설에서는 지진·해일 대비 훈련도 실시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북·러 가스·에너지·철도 협력하자”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 北에 ... 비핵화에도 도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 에너지, 철도건설 분야에서 남북한과 러시아 3국간 협조를 직접 언급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광복 66주년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낸 축전을 통해 “우리는 가스화와

에너지, 철도건설 분야에서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사이의 3자 계획을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모든 방향에서 조선과의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계획들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게 될 것

이며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근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프로젝트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 프로젝트 등을 3국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며 협조사를 밝힌 내용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7월을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일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회 조성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 국제 농자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 L.A 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동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7007-8 T. 222-2902, 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